

■ 광주·전남 비례대표 당선자 살펴보니

상의회장·언론인·군인 출신 등 6명

새누리, 김정록·주영순·이상일
민주, 백군기·김광진
통합진보, 정진후

4·11 총선 비례대표 당선자 중 광주·전남지역 출신은 모두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각 당이 발표한 비례대표 당선자 수는 새누리당 25명·민주통합당 21명·통합진보당 6명·자유선진당 2명 등 모두 54명이다. 이중 광주·전남 출신 비례대표자는 새누리당 3명·민주통합당 2명·통합진보당 1명 등 6명(11.11%)이다.

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을 포함한 경제인·언론인·군인·시민사회단체 출신 등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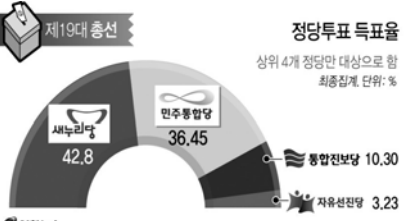
화순 출신인 새누리당 김정록(2번) 비례대표 당선자는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을 맡고 있다. 지체장애 4급인 김 당선자는 지난해 장애인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중증장애인 40명을 고용, 이들의 인권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장모장을 받는 등 장애인 인권과 복지운동가로 활동해 왔다.

새누리당 주영순(6번) 당선자는 이번 총선에서 당 전남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지원유세를 펼쳤다. 목포 출신인 주 당선자는 HN철강 대표로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을 세 번이나 역임하는 등 지역 대표 상공인 중 한 명이다.

주 당선자는 이날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남도민의 행복과 함께 12월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호남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합평 출신인 새누리당 이상일(8번) 당선자는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으면서 박근혜 선대위원장의 입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중앙일보 정치부장 등을 지낸 이 당선자는 연말 대선까지 선대위 대변인으로 박 위원장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장성 출신 백군기(8번) 전 3군사령관이 당선됐다. 백 당선자는 광주고를 졸업한 뒤 육사 29기로 입관해 특전사령관·3군 사령관 등 요직을 거쳤다. 백 당선자는 참여 정부 당시 4성 장군에 올라 현 정부에서 전역했으며 육사 출신 선배이자 3군사령관을 지낸 서종표 의원(비례대표)이 군 뒤편으로 적극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일각에선 “특전사령관 출신이 야당에 들어간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비례대표 출신 김광진 최고위원은 10번으로 당선됐다. 여수 출신인 김 당선자는 민족문제연구소 전남동부지부 대외협력 국장과 순천 YMCA 재정이사 등을 맡는 등 지역에서 활발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해왔다.

통합진보당에선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이 비례대표 4번으로 당선됐다. 합평 출신인 정 당선자는 1988년 교직에 입문한 뒤 세차례 해직을 겪었고 2009년부터 2년간 전교조 위원장을 지냈다. 정 당선자는 평교사 출신으로 20년 넘게 교사생활을 하다 국회의원이 된 첫번째 사례로 알려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영호남 지역구도는 견고했다

새누리 영남, 민주 호남서 완승

민주 부산서 2석 차지

영·호남 지역 구도는 19대 총선에서도 철옹성이었다.

이번 총선 결과, 새누리당은 영남에서, 민주통합당은 호남에서 완승했다.

12일 최종 개표 결과, 새누리당은 영남에서 63석을 확보하고 4석을 잃었다. 특히 대구·경북에서는 27개 선거구를 모두 가져갔다.

민주당은 4석 중 3석을 가져갔다. 부산에서는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사상)이 승리를 거뒀고 조경태 의원(사하 을)이 3선 고지에 올랐다. 또 경남 김해에서는 민주당 민홍철 후보가 집권여당 사무총장 출신을 지낸 김정권 의원을 꺾는 파란을 일으켰다. 경

남 거제에 출마한 거제경찰서장 출신의 김한표 후보는 영남에서 당선된 유일한 무소속 의원이 됐다.

18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조경태·최철국)과 민주노동당(권영길·강기갑)이 각각 2석씩을 얻었다. 탄핵 역풍이 불었던 17대 총선에서도 당시 열린우리당은 조경태·최철국(경남 김해 을)·김병근(경남 김해 갑)·강길부(울산 울주) 등 4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오히려 새누리당 1당 독식의 지역구도가 더 심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아권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된 김부겸·문성근·김정길·김영춘·최인호·김경수·강기갑 후보가 도전했으나 모두 낙마했다.

호남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당은 전북 11

곳 중 9곳, 광주 8곳 중 6곳, 전남 11곳 중 10곳 등 30곳 가운데 25곳을 차지했다. 5곳은 모두 통합진보당이나 무소속 후보에게 돌아갔다. 또 광주 2곳은 민주당이 아예 공천하지 않은 지역이어서 패배로 볼 수도 없다. 즉 3곳에서만 패한 것이다.

18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31석 가운데 25석을 얻고 무소속에 6석을 내줬다.

이번 총선에서는 특히,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측근인 이정현 의원(광주 서구을)과 이명박 대통령 직계인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 장관(전주 완산구을)이 모두 패배했다.

이처럼 지역주의 벽은 높았지만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적진에 뛰어든 후보들이 모두 선전하며 아쉬운 패배를 했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女風당당’ 지역구 의원 19명 역대 최다

새누리 4·민주 13·통합진보 2명... 전체 7.7%

제19대 총선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성 정치인들이 여야 선거전을 진두지휘해 ‘여풍(女風)’을 실감케 했다. 개표결과에서도 ‘여풍’의 힘이 거셌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여성 의원은 1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당선이 확정된 정당별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은 새누리당이 4명, 민주통합당 13명, 통합진보당 2명으로 전체 지역구 의원(246명)의 7.7%를 차지했다. 16대 6석, 17대 10석, 18대 14석에 이어 증가세를 계속 이어가게 됐다.

예초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에 나선 여성 후보자는 모두 63명으로, 지난 18대 총선 후보자 132명에 비해 ‘반토막’이나 여성 후보의 성직이 초라할 것이라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야당의 이른바 ‘여전사’들이 대거 살아돌아오면서 여성 의원들의 입지는 더욱 굳건해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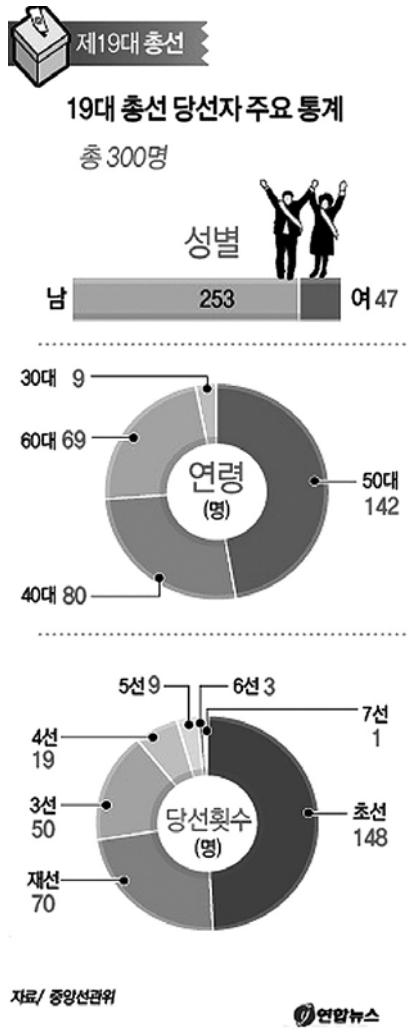
민주통합당은 5선의 고지에 오른 이미경(서울 은평갑) 의원을 비롯해 추미애(서울 광진을·4선) 의원, 박영선(서울 구로을·재선) 의원과 야권 단일후보인 통합

진보당의 심상정(경기 고양 덕양갑) 공동대표 등 당내외 입지가 굳건한 의원들이 당선됐다.

여기에 3선 의원인 새누리당 전채희 의원을 누른 이언주(경기 광명을) 당선인과 인재근(서울 도봉갑), 서영교(서울 중랑갑), 유은혜(경기 고양 일산동구) 당선인 등 등 각계에서 유명세를 탄 후보들이 국회 입성에 성공하며 야당의 여풍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당초 공천과정에서 나경원, 이혜훈, 조윤선 등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들이 대거 탈락한데다 당선 의원들의 지역구가 대부분 열세 지역이었다. 그나마 믿었던 김영선(경기 고양 일산서구·4선) 의원이 민주당 대변인 출신인 김현미 의원에게 패하며 5선에 실패했고, 전채희(경기 광명을·3선) 정옥임(서울 강동을) 의원 등 당선이 유력했던 후보들마저 졸졸이 낙선해 여성 의원들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됐다.

여성 공천 비율이 6.9%에 그쳤던 새누리당은 김을동(서울 송파병) 의원과 김희정(부산 연제) 의원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겨우 체면치레를 했다. /연남뉴스



새누리당



1. 민병주(여·53)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위원



2. 김정록(60)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3. 문명희(여·55)
(주)한국라이스텍 대표이사



4. 조명철(53)
전 통일부 통일교육원 원장



5. 강은희(여·47)
(주)위니텍 대표이사



6. 주영순(66)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7. 신의진(여·48)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의사



8. 이상일(50)
전 중앙일보 정치부장



9. 이예리사(여·57)
용인대학교 교수



10. 이만우(61)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1. 박근혜(여·60)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12. 안종범(52)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3. 김현숙(여·45)
숭실대 경제학과 부교수



14. 김장실(56)
전 예술의전당 사장



15. 이자스민(여·35)
물방울나눔회 사무총장



16. 최봉홍(69)
전 국환노동조합연맹 위원장



17. 류지영(여·62)
(주)유아림 대표이사



18. 송영근(64)
전 국군 기무사령관



19. 민현주(여·42)
경기대학교 교수



20. 박창식(52)
(사)한국드라마제작자협회 회장



21. 손인춘(여·52)
(주)인성내추럴 사장



22. 김광진(38)
대학생자원봉사단 V원정대 대표



23. 현영희(여·60)
새누리당 상임전국위원



24. 이재영(36)
World Economic Forum 아시아 팀 부국장



25. 신경림(여·58)
이화여대 건강과학대학학장

민주통합당



1. 전순옥(여·58)
참여성노동복지터 대표



2. 최동익(50)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3. 은수미(여·49)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4. 홍종학(53)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5. 진선미(여·44)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6. 김용익(59)
민주통합당 보편적복지특별위원장



7. 배재정(여·45)
전 부산일보 기자



8. 백군기(62)
전 특전사령부 사령관



9. 남인순(여·53)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10. 김광진(30)
순천YMCA 재정이사



11. 한정애(여·47)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12. 김기준(54)
전국금융노동조합위원장



13. 장하나(여·34)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대변인



14. 김기식(47)
참여연대 사무처장



15. 한명숙(여·69)
민주통합당 대표



16. 도종환(59)
시인



17. 김현(여·46)
민주통합당 수석부대변인



18. 진성준(44)
략기획국장



19. 최민희(여·51)
국민의명령대외협력위원장



20. 홍의락(57)
경북참여정칙개혁연대 공동대표



21. 임수경(여·43)
방송위원회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

통합진보당



1. 윤금순(여·52)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2. 이석기(50)
전 민중의소리 이사



3. 김재연(여·31)
전 한국대학생연합 집행위원장



4. 정진후(54)
전 전교조 위원장



5. 김제남(여·49)
녹색연합 사무총장



6. 박원석(42)
전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자유선진당



1. 문정림(여·50)
자유선진당 대변인



2. 김영주(57)
부산시당위원장